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오덕교 목사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선교 1세기 만에 전 인구의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는 한국에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들의 눈물과 수고, 교회 지도자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미션 스쿨을 세워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반상제도와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함으로 사회 개혁을 이끌었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 약력 : •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Ph. D.)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역할을 다함으로 교회 성장을 경험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가운데 가장 특기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한 군선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군선교 운동은 1945년 우리 민족이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시작되어, 이제 50여 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20세기의 좌우 이념 논쟁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나누어진 한반도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한국군이 생겨났다. 한국군의 창설과 함께 군대를 복음화하려는 관심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한국군의 군선교의 역사는 편의상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다. 묵은 땅을 갈고 군선교의 기초를 놓으며, 복음화의 씨앗을 뿌린 파종기(播種期 1950-1967), 군대라는 황금 어장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란 성장기(成長期 1968-1987), 그리고 1980년대의 잠시 동안의 침체기를 지나고 일어난 교회 건축 운동과 진중 세례 운동을 통해 복음 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결실기(結實期 1988년 이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구분에 따라 한국군 복음화 50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파종기(1950-1967)

군선교 운동은 군인 교회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한국 최초의 군인 교회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의 수립, 조선경비대의 창설과 함께 세워졌다. 1948년 전북 군산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 12연대장인 백인기 중령이 장병들의 정신 지도를 위해서 종교집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민간 목사를 매주 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최초의 군인 교회가 서게 되었

다. 12연대는 1949년 10월 26일 인천 소년원 부근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가 떠나게 되자, 이를 접수하여 미군이 사용하던 교회를 연대 군인 교회로 활용하였다. 이 교회는 한국의 초대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한석진 목사의 손자 한병근 소위의 인도 아래 4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같은 시기에 용산 군인교회가 설립되었다. 곧 1948년 늦게로부터 해군의 정달빈 목사, 육군의 황기오 상사, 이광민 씨,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부인 홍은혜 여사 등이 남산감리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집회가 이어져, 1949년 2월 5일 해군 및 육군 장교들과 3군에 속한 가족 15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용산 군인교회가 생겨났으며, 설립한 지 불과 6개월 후에는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하여, 3군 군목 업무의 모체가 되는 교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1) 군종 목사 제도의 창설

군인 교회의 설립은 군목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군목 제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조선경비대 제1연대의 부관이었던 강문봉은 미국 군대 조직에 대하여 연구한 후, “미국 체제의 군사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군종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군목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¹⁾ 1950년 한국전쟁이 치열하던 때 미군 33사단 10공병대대의 한 무명의 카투스 병사는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쟁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첩판으로 무

1) 박성원, “군종병과의 ‘어제와 오늘’”, 『지평문화』(1996년 10월), p. 20.

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써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탄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군대 안에서 공식적으로 군종 목사 제도에 대한 논의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²⁾

군종 장교 제도는 서구 역사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제도이다.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나던 16세기 중반에 스위스의 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가 스위스의 용병을 돕기 위해 중군 목사로 일하였고,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한창이던 17세기 중반에는 많은 중군 목사들이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의 군대를 지원하였다.³⁾ 또한 미국에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전쟁이 일어났던 1775년 4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4명의 목사가 중군하였고, 같은 해 7월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장군이 중군 목사 제도를 인정함으로써 군목제도가 미국 땅에 정착하였다.⁴⁾ 이렇게 시작한 군종 제도는 캐나다, 칠레, 벨기에, 스페인, 필리핀 등의 기독교 권만이 아니라,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이슬람권, 태국과 같은 불교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⁵⁾

2) 육군본부, 『4육군군종사』(1975년 9월 30일), pp. 39-40. 김홍태, “군 신자화 운동이 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 신학 석사 학위 논문(서울: 감리교신학대학, 1987), p. 12에서 재인용.

3)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나 존 오웬(John Owen)과 같은 청교도 목회자들이 중군함으로 의회군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의 리처드 백스터와 존 오웬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라.

4) 김홍태, “군 신자화 운동이 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 신학석사 학위 논문(서울: 감리교신학대학, 1987), p. 7.

5) Ibid., pp. 7-10, 12; 박성원, op. cit., p. 20.

1950년 한국군 내부에서 군목 제도에 대한 요청이 대두되자, 극동사령부 군종부장 베넷(Ivan L. Bennet) 군목은 예하 미군 제1·2·24·25사단 등의 군종참모를 소집해서 회의를 열고, 감리교 선교사 쇼우 박사와 천주교 조지 앤 캐럴 신부, 한경직, 유형기 목사 등과 함께 한국군의 군종제도 확립에 관한 논의를 했다. 쇼우 박사와 베넷 군목은 1950년 9월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군종제도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국무총리로부터 “한국군 군종제도의 창설을 적극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9월 18일 장로교·감리교·천주교·구세군·성결교가 군종제도 창설을 위해 연합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집회에서 군종제도 추진 위원회를 조직하여 장로교의 한경직 목사, 감리교의 류형기 목사, 천주교의 조지 앤 캐럴 신부를 대표로 선출하였으며,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여 군종제도를 들 것을 정식으로 청원했다.⁶⁾

군종 제도에 대한 청원을 받은 대통령 비서실은 1950년 12월 21일 국방부에 중군 목사를 들 것을 지시하였고, 1951년 2월 7일 육군 일반명령 제31호에 의하여 일반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대위 김득삼 목사가 초대 군종과장으로 임명을 받음으로 군내에서 종교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⁷⁾ 같은 해 2월 28일 32명의 목사가 무보수 촉탁의 신분으로 군에 입대하여 “장병의 사상 지도, 신앙지도, 인격지도, 종교교육 및 야전 예

6) 한국의 군종제도는 신자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되었다. 1953년 4월 21일 현재 각 교단별 신자 수는 기독교 28,652명, 천주교 5,694명, 불교 5,055명이었다. 박성원 op. cit., p. 27.

7) Ibid., p. 12.

배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중군 목사들은 군종 업무를 통하여 장병의 전투의식을 양양시킴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전력을 다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군종 제도는 1952년 6월부터 유급화되면서 활성화되었고, 해군과 공군에도 정착되었다.⁸⁾

해군은 육군보다 먼저 군목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정부 당국의 배려보다는 한 개인의 노력 때문이었다. 한국 해군의 창설자이며 초대 참모총장이었던 손원일 제독은 서구의 여러 나라를 돌아본 후 군의 정신 무장에 기독교적인 신앙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군목 제도를 해군에 도입하였다. 독립 지사 손정도 목사의 아들이었던 손 제독은 1949년 1월 평소에 알고 있던 정달빈 목사를 해군 장교로 입대하게 하였다. 그는 정훈감실에 교회과를 신설하고, 정달빈 목사를 교회과장에 임명하여 군종 업무를 맡겼다. 1950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된 이 일은, “1950년 12월 6일 해군본부작전명령편 제33호 및 34호에 의거 해군본부에 최초로 군목실이 설치됨으로 해군에 정식으로 군목 업무가 시행되었다.”⁹⁾

해병대에서의 군목제도는 1951년 3월 12일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으로 있던 김대식 중령이 사령부 강당에 박창번 목사를 초빙하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사령부 교회가 설립되었고, 동년 5월 27일 군목실이 정식으로 제도화되었다.¹⁰⁾

공군의 군종 활동은 무명의 한 기독교인 부사관이 “공군에

8) Ibid., p. 20.

9) 김홍태, op. cit., pp. 14-15.

10) Ibid.,

서도 다른 군과 같이 군중 업무가 수행되어 장병들이 신앙 생활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청원서를 올리자, 공군 본부에서 1951년 가을 미 공군 군목부장 패터슨(Patterson)의 자문을 얻어 군목 업무 발족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작되었다.¹¹⁾ 그러나 공군의 형편이 열악하여 군중 업무가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 지내다가, 1952년 2월 10일 육군 군목과 장 김형도 목사가 공군본부에서 예배를 인도함으로써 공군본부 교회가 창설되면서,¹²⁾ 군목제도가 시작되었다.

(2) 군선교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

각 군에서 군목제도가 창설되고, 군중 활동이 본격화함으로 군선교 운동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지만 제도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였고, 복무 여건이 일반군인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군목들의 노고로 인해 전쟁으로 무너진 교회당이 재건되고, 신앙 상담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자, 정부는 군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55년 10월 1일 군중 업무에 대한 제반 규정을 육군 규정 10-2로 제정하고 공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서 행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¹³⁾ 또한 195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합동찬송가에서 200여 곡을 발췌하여 육군찬송가를 발간함으로 장병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고, 1957년 2월 14일에는 군인들의 탈영과 절도, 사기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11) 문은식, “한국 군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비전” 「빛과 소금」(1996년 6월 호), p. 47.

12) 김홍태, op. cit., p. 15.

13) 박성원, op. cit., p. 27.

해 장병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 업무를 시행하게 함으로 군중 업무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군중 활동에 발맞추어 1956년 12월 8일 기독교장교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교회(OCU)가 조직되었고, 이를 통해 기독교장교단과 군목단이 상호간 조력하는 구도를 갖게 됨으로 군선교는 더욱 더 활발하게 되었다.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군선교 운동은 자리를 잡았고, 1960년대부터 군선교를 위한 예배와 집회 처소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예배와 집회를 위한 진중 교회당 건축 운동은 1964년부터 일어났다. 이는 한국군의 집회 시설이 빈약한 것을 인지한 주한 미군 군목들이 전세계 미군 군목들에게 한국 군인교회 건립을 위한 모금을 호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미군의 후원으로 임시 건물에서 예배하던 군인교회는 시멘트 블록의 기와집으로 지어졌고 예배하며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군 복음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67년 6월, 국방부는 문제 사병 선도 지침을 만들었고, 7월에는 대대 단위에 이르기까지 군중 부사관을 배치함으로 군목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군선교 운동은 국군의 월남 파병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65년 8월 국회에서 ‘전투사단 파월안’이 통과되면서 월남에 군목이 파송되었고 이와 함께 군대 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군목들은 파병되는 장병들을 위해 환송예배를 드렸고, 위문품 및 성경 찬송가와 전도지를 보내고, 예배와 의식의 거행, 인격 교육을 통해 조국과 자유 수호를 위한 군인의 본분을 일깨웠다. 월남 파병은 한편으로는 월남이 불교 국가라는 이유로 군송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

련하였고, 이로써 군은 기독교, 천주교와 불교의 3개 종파가 각축하는 장으로 변화였다.

2. 성장기(1968-1987)

군복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군선교 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1965년 이화여자대학교의 김활란 박사가 전군 복음화 운동을 제안하면서 조직적인 군선교 운동이 시작되었다. 김활란 총장은 1968년 6월 '새시대복음화 운동본부'를 조직하였고, 선교의 황금 어장인 군부대를 복음화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 각 군 군종감, 한경직 목사, 홍현설 목사, 강신명 목사 등 20여 명과 만나 군장병의 정신 지도를 논의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새시대복음화 운동본부'의 주최로 전도단을 조직하여 6군단, 20사단, 26사단 등의 부대를 방문하여 순회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후방 교회의 군선교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1) 전군 신자화 운동

1960년대의 후방 교회의 지원은 비조직적이었다. 각 교회가 개별적으로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행사를 벌이거나 결혼 장병을 교회로 초청하는 등의 일로 군선교를 후원하였다. 이 시기에 군목들은 군인교회나 교도소를 방문하여 전도 집회를 갖고, 각종 기독교 문서를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교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잦은 침투로 인하여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자, 전군 신자화 운동이 본격화되

었다.

무장병력에 의한 청와대 침투 사건 및 1969년의 삼척·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 안보와 군 정신 무장에 충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1군은 전방 및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부대와 장병들의 안위와 전력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충지였다. 1군사령관으로 취임한 한신 장군은 장병들의 정신력을 극대화할 것을 고심하던 중 별공의 유일한 길은 신앙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군종참모였던 한준섭 목사의 조언을 받아 전군 신자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신앙이 없는 장군이었으나, 모든 장병으로 하여금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택하여 신앙 생활을 하게 하였고, 후방에서 답지한 방위성금으로 오토바이 53대를 구입하여 1군 산하 군종장교들의 기동용으로 공급하여 군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군 신자화 운동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전군신자화 운동은 합동측 파송 군목인 오석용 목사에 의하여 제6군단에 적용되었다. 제6군단 군종참모였던 그는 1972년 신임 군단장 이소동 소장에게 전군신자화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군단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 군단장은 지휘서신 1호로 전군신자화 운동을 전개할 것을 명령하였고, 모든 행사 전에 반드시 기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점차 전군 신자화 운동이 확산되자, 보호 사병이 감소되고 각종 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등 운동의 결과들이 나타났다.¹⁴⁾

14) 이러한 증거는 아래의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홍태, op. cit., p. 19.

이러한 현상에 고무된 육군은 1973년 말경에 48%에 있던 종교인 수를 50%로 증가시키기로 정책을 세워 전군에 시달하였다.¹⁵⁾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군 신자화 운동은 육군만이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도 파급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6월 “신앙전력화”라는 휘호를 써서 전군 신자화를 후원함으로써 전 군대의 신앙인화 운동은 본 궤도를 달리게 되었다.

종군 목사들은 전군을 기독교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부대를 방문하여 전도하였고,

표1) 연도별 신자현황 및 사고자수 증감 현황(육군)

종교별 연도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계	군사고자수
1970년도	78,176	15,694	13,370	2,793	110,033	19,248
1971년도	128,782	22,908	21,756	908	174,354	14,708
1972년도	181,000	32,121	28,678	1,547	243,346	11,200
1973년도	199,623	39,126	38,524	1,829	279,102	9,041
1974년도	208,553	40,038	41,392	848	290,831	

군대에서 신앙인의 증가는 범죄율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를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의 통계를 참고하자.

표2) 신앙 유무와 사고 발생 현황(육군)

유형 구분	발생자수	근무이탈	폭행	자살	총기 및 강력	경제범	군용물	안전사고
무신 양자	164	107	15	4	2	4	2	20
신앙자	77	44	9	2	0.2	2	1	10
사고율	2.1배	2.4배	1.7배	2배	10배	2배	2배	2배

15) Ibid., p. 19.

강연과 설교, 기도회와 성경 강좌를 개설함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군목들의 군복음화를 위한 헌신적인 사역이 알려지게 되자, 후방교회의 군선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 6월 민간 종교지도자들이 전방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 위로 행사를 가졌고, 1973년 6월 8일부터 23일까지 28명의 강사진이 2군 관하 25개 부대 내 종교 강연을 실시하여 3,674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1972년부터 1973년 사이에는 초대 야전군 군종참모였던 황금천 목사와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가 야전군 사령부에서 순회종교강연회를 개최해 10,889명의 초급간부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결신자가 생겨났다. 그해 9월 한경직 목사가 야전군 관하 부대를 중심으로 실시한 종교 강연회에는 장교 9,252명과 사병 48,751명이 참석하여 4,443명이 신앙을 가질 것을 결단했다. 이와 같은 활발한 군복음화 운동에 고무된 후방교회는 조직적인 후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 군복음화후원회(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조직

1인 1종교를 갖는 전군 신자화 운동이 열매를 맺자, 교계의 지도자들은 이를 군복음화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1971년 한신 장군의 초청을 받아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1군사령부를 방문한 한경직 목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당시 군종감이던 한준섭 목사로부터 군에서 일어나고 있던 전군신자화 운동과 이를 후원할 수 있는 일원화된 단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1972년 4월 11일 40여 명의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서울 세종 호텔에서 전군 신자화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마련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조찬 기도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인 김관석 목사의 사회로 개최하여, 합동측 대표인 김윤찬 목사의 기도, 한경직 목사의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군을 신자화하여 민족의 숙원인 국토 통일에 이바지하는 데 교파를 초월한 협력을 아끼지 말자”는 설교와 연세대학교 교수인 백낙준 박사의 축도로 진행되었고, 전군 신자화 후원회 준비 위원으로 백낙준 박사, 김윤찬 목사, 한경직 목사, 배명준 목사, 김관석 목사, 이기혁 목사, 황성수 박사, 방순원 변호사, 유상근 장로, 신도한 장로, 최창근 장로 등 11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같은 달 19일 백낙준 박사의 자택에서 조찬기도회를 갖고 명칭을 ‘전군복음화운동’으로 정하였고, 위원장에 백낙준 박사, 총무에 황성수 박사를 선임하였다.¹⁶⁾

‘전군복음화 운동’위원들은 4월 28일 명지대에서 확대회의를 열고 명칭을 ‘군복후원회’로 정하고, 전군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각 군 군중감으로부터 군선교 활동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5월 8일에는 가칭 ‘전군 신자화 후원 확대회의’가 김윤찬 목사가 시무하는 평안교회당에서 교계 인사 및 각 군 군중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였다. 이 회의에서는 ‘전군 신자화 후원 확대회의’ 발기인 명단을 결정하는 한편, 범기독교적 발기대회를 갖기로 결의하였고, 5월 29일 오후 5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정치, 경제, 언론, 교육, 교계 지도자 등 각계 인사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

16) 한국기독교공보, 1972년 4월 22일자.

는 회(會)의 명칭을 ‘전군 신자화 후원회’로 하는 4장 부칙 10조의 규약을 채택하고 임원 조직을 준비위원회에 일임하는 한편, 새로 조직되는 임원진이 군선교 지원책을 연구토록 했다. ‘전군 신자화 후원회’의 초대 회장에는 백낙준 박사, 부회장 한경직 목사, 총무 오재경 장로, 회계 최창근 장로가 선임되었다. ‘전군 신자화 후원회’의 설립과 함께 군선교 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는 1970년대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배경이 되었다.¹⁷⁾

(3) 진중 세례 운동

‘군복음화후원회’가 초교파적으로 조직되면서 군선교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합동세례식을 거행하기까지 발전하였다. 진중 합동세례식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세례식으로, 한 번에 3천여 명이 세례를 받은 제2의 사도행전의 역사로 평가되고 있다. 최초의 합동 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보병 21사단 66연대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합동

17) 군복음화 운동은 1974년 11월 26일 한경직 목사가 제2대 후원회장에 취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전군 신자화 후원회’는 후원회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1976년 7월에 ‘군복음화 후원회’로 개칭하였다. 1981년 3월 7일 국방부인준 918.1-145 지시문서를 통해 종단별 공식 후원 창구를 일원화할 것을 명함(국군중 24250-150/85.7.11/국방부훈령 제572호제정/97.10.27)으로, 군선교 운동/후원지역은 일원화되어야 했다. 4년간의 논의 끝에, 1985년 7월 군선교 후원을 위한 창구가 군복음화 후원회로 일원화되었고, 그 다음해 한국군중 목사단이 창립되었다. 군복음화후원회는 군선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1987년 1월 ‘군복음화보’를 월간으로 창간하였고, 1988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단체로 인가를 받음으로 군복음화를 후원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이 되었다.

측이 파송한 이상강 목사가 군복음화를 위해 수고한 결실로, 연대장 유정목 대령을 비롯한 154 명이 합동세례를 받음으로 출발하였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보병 제26사단(5110부대)에서 최세태 목사의 집례로 1,460 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12월 5일에는 제5사단(9011부대)에서 한준섭 군중감의 집례로 1,005 명이 세례를 받았다. 1972년 3월 9일 제28사단 81 연대에서는 1,009 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날 세례식은 한경직 목사를 비롯하여 민간 목사 140 명, 군목 50 명, 선교사 및 외국인 30 명과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기자 26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같은 해 4월 25일에는 육군 보병 20사단에서 통합측 군목인 김태동 중령의 인도로 장교 88 명, 사병 3,390 명 도합 3,478 명이 세례를 받았는데,¹⁸⁾ 이는 단회 수세 인원으로는 최고를 기록하며, 군과 한국 교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합동 세례식이 메스컴을 타고 전 부대와 교계에 알

18) 교회연합신보, 1972년 4월 30일자.

19) 다음의 통계를 참고하여 보자.

표) 연도별 세례현황

연도별	구분	합동세례		일반세례	계
		횟수	인원		
1971년도		6	4,377	2,943	7,320
1972년도		39	23,405	18,954	42,359
1973년도		43	26,803	17,880	44,683
1974년도		15	6,390	19,506	25,896
계		103	60,975	59,283	120,258

려지자, 각 부대에서는 합동 세례식 봄이 일어나 수많은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다.¹⁹⁾ 또한 세례식을 참관하기 위해 국내 종교 인사는 물론 해외 종교인들까지도 많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국내의 기자들도 이 역사적인 세례식을 참관하며 보도하였다.²⁰⁾

이와 같이 군선교 운동은 한국 교회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곧 정부 당국의 전군 신자화 정책, 교계의 신자화 후원회 조직, 군목들에 의한 진중세례 운동은 동시적인 사건이었고, 상호 협력함으로 괄목할 만한 군선교 운동을 이끌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는 역사 이래 최대의 교회 성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군선교 운동의 결과로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 1974년의 엑스포로 '74, 1977년의 민족복음화대성회 등 대중 집회가 이어졌으며, 이러한 교회 성장을 통해서 1974년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3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군대에서의 선교 운동은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전 대통령은

20) 1970년대의 군선교는 후방교회의 후원이 컸다. 이 시기에 활발하게 군선교 운동을 후원한 단체로 영락교회와 기드온연합회를 들 수 있다. 영락교회는 군인교회 건축을 많이 지원하였고, 많은 책을 기증하여 군복음화를 후원하였다. 예를 들어, 영락교회는 1976년 6월 군복음화 후원회(현 군선교연합회)를 통해 포켓용 찬송가와 「기독교란 무엇인가」 각각 30,000부를 기증하여 연대급 부대에 보급하게 하여 장병 1인1교 갖기에 크게 공헌하였다(박성원, op. cit., p. 29). 1963년 10월 최창근, 허봉락, 방순원 장로 등 12인 중심이 되어 초교파적으로 창립된 기드온 협회는 1971년 1군사령부 한신 장군이 한경직 목사에게 설교를 요청할 때 최창근 장로가 성경 2만 권을 기증하면서 군내에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최근까지 4천만 권 이상을 기증함으로 군복음화를 크게 후원하였다(군복음화보, 2001년 6월 30일자).

기독교교회(OCU)가 정치 세력화를 구축한다는 구실로 현역과 예비역을 구분시켜 군에서의 종교 활동을 약화시켰고, 전도 운동이 종교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진중 세례 운동을 중지시킴으로 말미암아 군선교 운동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제5공화국의 반기독교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성장을 계속하였다. 1984년 선교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인의 수가 764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 개척 운동을 전개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당이 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서는 군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81년 중단별 군선교 후원 창구를 일원화했고,²¹⁾ 1982년에는 군선교를 신학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육군 군종감실은 군복음화후원회의 협력을 얻어 교계 신학교수 8명에게 필요한 분야별 연구 논문을 위촉하여 집필하게 하였고, 1983년 10월에 ‘군진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논문들이 출판되었다. 1984년

21) 종교시설이 거의 민간 종교단체의 후원으로 신축됨에 따라 군종 장교들은 해당부대 군인교회 건축을 위해 민간 단체 및 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때로 민간 종교단체에 무분별한 지원요청으로 물의를 빚을 뿐 아니라, 군종장교가 미배치된 부대와 대대급 부대에서 지휘관과 군종사병들이 종교단체를 찾아 부대의 실정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건축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1981년 8월 28일 국방부에서는 군 종교단체 운용 정상화에 대한 공문을 하달하여 종과 구분 없이 일반인의 군내 종교단체 활동 참여를 금지시켰고, 군종 활동을 각 군 참모총장 통제 및 감독 하에 군 종교시설에서 하도록 국한시켰고, 기금모금행위, 정기적인 회비각출 및 남부 행위 등 종교활동을 빙자하여 외부로부터 물질이나 금전적 지원 및 수수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군의 지침을 근거로 하여 1985년 7월 11일 국군종 24250-150에 근거하여 군복음화후원회가 기독교 군선교 후원 단일 창구로 인준되어 교파를 초월한 본격적인 후원체제로 도입하게 되었다.

에는 세계기독교대회 한국에 유치하여 군복음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고, 1986년에는 군선교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군종목사단을 조직함으로 군선교를 활성화하고, 결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하지 않았다.

3. 결실기(1988-현재)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의 군복음화 운동은 제5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잠시 정체하였다. 군복음화가 주춤하는 동안 한국교회는 1990년대 이후로 성장의 정체와 교인의 감소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군복음화 운동은 다시 시작되었고, 재도약의 시기를 맞으며 결실하게 되었다. 이는 ‘군복음화후원회’가 사단 법인화되어 공식적인 군복음화 후원 창구가 된 것과 새로 ‘군복음화후원회’ 이사장에 취임한 곽선희 목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초대 이사장이었던 한경직 목사와 2대 이사장에 취임한 곽선희 목사의 리더십은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확연히 구분된다. 군선교의 선구자였던 한경직 목사²²⁾가 활동하던 시기는 경제적으로 낙후하였거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경제적인 부흥을 체험한 때로, 당시의 과제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었으므로, 군선교는 단지 먹을 것을 후원함으로 가능하였다. 그

22) 한경직 목사는 학원과 공장, 그리고 군대를 선교의 황금 어장으로 보고, 군대의 복음화는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영락교회 여전도회를 통해 군인 교회당을 건축하고, 영락교회의 최창근 장로가 관계를 맺고 있는 기독교실업인회를 통해 군선교를 적극 지원함으로 군선교 운동의 기초를 놓았다.

러나 1988년에 있었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적인 상태는 개발도상국을 벗어났고, 산업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조직적이며, 효율적으로 군선교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을 때, 이를 만족시켜 준 인물이 바로 곽선희 목사이다.

곽선희 목사는 1988년 10월, 올림픽 경기가 한창 진행 중 이던 당시에 ‘군복음화후원회’ 제2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외적으로는 교회당 건축과 제2차 진중 세례 운동을 지원하고, 내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선교를 내 실화하여 21세기 군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먼저 1990년대 이후에 시작된 진중 예배당 건축 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진중 교회당의 건축

1980년대의 군복음화 운동이 잠시 정체기를 맞았지만 군복음화에 대한 열정마저 식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열정은 1990년대에 ‘군복음화후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군복음화후원회’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지어진 예배당을 보수하거나 교회당이 없는 부대에 교회당을 짓는 작업을 전개 함으로 1990년대의 군선교 운동을 이끌었다. 이 시대의 교회 건축 운동은 각 교회의 협력을 얻어 교회를 건축한 후, 군대에 기증 채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군 자체의 예산으로는 군인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여력이 없어 민간 교회나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²³⁾ 이들의 지원을 통해 많은 교회당이 건축되었다. 1991년 교회당 38동을 신축하였고, 18동을 개축하거나 보수하였다. 1992년에는 신축 58동 개보수 40동, 1993년 신축 37동 개보수 2동, 1994년 신축 33동 개보수

12동, 1995년 신축 37동 개보수 29동, 1996년 신축 44동 개보수 18동, 1997년 신축 50동 개보수 17동, 1998년 신축 33동 개보수 10동, 1999년 신축 21동 개보수 7동, 2000년에는 22동을 신축하였고 20동을 개보수하였다. 1991년부터 2천 년 까지 만 10년 동안에 교회당 386동을 신축하고, 173동을 개축하거나 보수하여 총 559동에 이르렀는데,²⁴⁾ 이는 군복음화 후원회가 1990년대에 군인 교회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를 개축 또는 보수하거나 신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중 교회당 건축 운동은 교회 연합 운동이라는 열매를 가져왔다. 교회의 분열로 인한 적대적인 감정과 개교회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연합활동을 멀리하였던 한국교회는 진중 교회당 건축 운동으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연합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연합 운동은 육·해·공군 본부교회당이 2천 년대의 군선교 센터로 건축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군종목사를 파송하고 있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등 10개의 교단이 육·해·공군교회당 건축을 각 교단의 사업으로 책정하였고, 범교회적으로 후원 운동을 벌임으로 한국교회 연합 운동의 구체적이며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1996년 육·해·공군교회당 건축 이후, 한국교회는 군선교를 위해 진력하게 되었으며, 전 인구의 25%인 1,200만 명이 그리스도를 주로

23)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등이 교회 건축에 앞장섰고, 한국 유리의 최태섭 장로와 벽산그룹의 김인득 장로가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70년대로부터 벽산은 건축 자재를, 한국유리는 건축에 필요한 유리를 군복음화 후원회를 통해 기증함으로 군인 교회 건축을 크게 지원하였다.

24) 군복음화보, 2001년 4월 30일자.

고백하게 되었다. 교회 연합 사업을 추진한 다른 사건은 제2차 진중 세례 운동이다.

(2) 제2차 진중 세례 운동

진중 교회당이 개보수되고,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되면서 제2차 진중세례 운동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 세례 운동이 타종파의 강력한 견제와 도전으로 주춤하였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2차 진중 세례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던 한국 교회가 정체, 둔화, 교인 수의 감소를 경험하던 시대에 일어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곧 1970년대의 부흥 운동의 배후에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진중세례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21세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진중에서 집단 개종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은 1990년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시작되는데 그 배경은 육군교육사령관으로 부임한 김진영 장군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김진영 장군은 1990년 육군교육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3성 장군으로 세우시고 육군 교육사령관으로 부임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자문하였다. 교육 사령관으로 재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던 그는 예하부대인 육군훈련소를 통해 병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인하였다. 예하 부대의 목사 18명을 공관에 초청하여 자신이 군선교의 울타리가 될 것을 밝히면서 전도와 진중세례를 위해 수고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 제2의 진중 세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김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대를 변혁시킴으로 민족 복음화

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훈련병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훈련병의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 주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십자가 10만 개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인 1,000 만 원을 현금하는 등 진중 세례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²⁵⁾

제2차 진중 세례 운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군목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신앙적인 각성을 하였다. 1992년에는 85,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1993년에는 128,000명, 1994년에는 130,000명, 1995년에는 186,000명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²⁶⁾ 1997년 4월 19일에는 한 번에 행한 세례 의식으로는 교회 역사상 최고 인원인 7,200명이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역사를 갱신하였다. 이러한 진중 세례 운동은 1997년 이후 20만 명을 넘어서서 1999년 216,080명이 세례를 받았고, 2000년에는 187,156명, 2001년에는 191,758명이 세례를 받는 등 집단 개종 운동이 일어나서,²⁷⁾ 제2차 진중 세례운동이 시작한 지 10년 만에 170

25) 김진영 장군은 군목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군목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군목들이 성지를 답사할 수 있는 길을 주선하였으며, 군선교 연합회(전 군복음화후원회)가 육·해·공군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육군 참모총장으로 부임하여 교회당 건축을 주도적으로 홍보, 교회 및 실업인들이 재차 현금을 함으로 무난히 현당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는 군대에서 폭탄주를 금함으로 군대의 음주 문화를 바꾸는 등 기독교 군 지도자로 큰 덕을 세웠고, 신앙인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 김진영 장군은 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으며, 한국 기독교군선교연합회 법인 이사, 군선교회 회관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다.

26) 박성환, op. cit., p. 29.

만 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한 진중 세례식을 통해 청년들이 진중에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군대 안에서 집단 개종 운동이 일어나자, ‘군복음화후원회’는 1998년 군인 신자가 사회에 나가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교회와 연결하여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21세기 한국 기독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2020’ 운동을 선언하였다. ‘비전2020’ 운동은 군복음화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한국교회의 장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전2020 운동

군대 안에서 집단 개종 운동이 일어나자, 교계에는 진중 세례 운동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전개되었다. 어떤 이는 신앙이 없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교회의 질서를 깨거나 세례의 의미를 격하시킨다고 비난하였고, 어떤 이는 진중 세례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고 반대하였다. 집단 개종한 이들에 대한 신앙적인 양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한편으로 타당한 것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군인교회가 진중 세례만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자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곧 집단 개종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진

27) 한국기독교군선교위원회, 「총회록」(2002), p. 67.

중에서 세례를 받은 장정이 전역 후에 거주할 지역의 교회와 연합하여 개종한 장병을 양육하도록 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적인 연구가 필요했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비전2020’ 운동이다.

‘비전2020’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합동참모의장으로 수교하였던 이필섭 장군이다. 시대적 필요성을 인식한 이 장군은 1996년 2월 군복음화에 대해 군복들과 논의한 후, 스가라서 3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군복음화 운동 계획을 펼쳤다. 매년 25만 명의 장병 세례신자를 일반교회로 환원하여 2020년경에는 민족의 75퍼센트인 3,700만 명을 기독교인화하자는 제안을 한국 군종목사단이 군 내부적으로 적극 실천할 것을 채택하였으며, 이 제안에 따라 ‘군복음화후원회’는 1998년 2월 23일 ‘비전2020’ 실천운동본부를 개설한 후 ‘비전2020: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비전2020’ 운동을 시작하였다.

‘비전2020’ 운동은 “군과 민족, 인류 복음화에 이바지함으로 국가적으로는 모범국민 육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 애족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고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략화 운동이요,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이었다.²⁸⁾ 이러한 군복음화 전략이 군복음화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자, 군복을 파송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신, 통합, 합동),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

28)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미래출석교인 양육교제」(2002, 5), p. 27.

기독교장로회 등 10개 교단의 교단장과 교단 총무들이 ‘비전 2020’ 운동을 실천할 것을 1998년 11월 13일 비전2020 운동 실천결의대회(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군복음화후원회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임을 선언함으로써 ‘비전2020’ 운동은 민족복음화를 향한 21세기 한국교회 군선교 운동이 되었다. 곧 ‘군복음화후원회’와 군목단, 그리고 후방교회가 ‘비전2020’ 운동을 채택하여 21세기 민족 복음화를 위한 명확한 선교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비전2020’ 운동에 의하여 군선교의 전략이 채택되면서 ‘군복음화후원회’의 사역은 군선교를 위한 센터의 역할을 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2월 9일 모인 제28차 ‘군복음화후원회’ 총회는 명칭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개칭하였다. 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전국에 지회를 설립하였고, 같은 달 2월 26일에는 ‘비전 2020’ 실천운동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채택하였으며, 7월에는 제1기 군선교사 양성 훈련 비전2020 캠프를 차린 후 평신도 군선교사를 파송하였다. 2000년 2월 29일에는 군선교의 노래가 제정되어 전국교회로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 1월에는 군선교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군선교연합 월례조찬기도회를 시작하였다. 또 이 일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군연합 민족복음화 각 지역별 순회 대성회를 개최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사역이다. 한편 ‘비전2020’ 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02년 2월 28일에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군선교신학위원회는 매년 심포지엄 및 세

미나, 연구논문집들을 발간하여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에 신학적 뒷받침을 함으로 복음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군선교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1950년대에 군종목사 제도를 창설하기 위한 노력, 1960년대의 전군 신자화 운동, 1970년대 신앙전력화 운동, 1980년대 정체기, 1990년대의 교회당 건축 운동과 제2의 진중세례 운동, 그리고 ‘비전2020’ 실천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군선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군선교를 통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을 이루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며, 이를 이룩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한 군목들, 이들을 후원한 민간 교회, 그리고 이 일을 효율적으로 지원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군목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었다면 1970년대의 부흥 운동도, 1990년대의 집단 개종 운동도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후방 교회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군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선교 운동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단체는 1972년 ‘전군신자화후원회’로 창립한 후, 1976년 ‘군복음화후원회’로 개칭하였고, 1999년 이후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라고 불리는 등 다양한 이름을 거치면서, 군복음화를 위해 전국의 교회들이 후원하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군선교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전도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군인 교회당을 건축하고, 개척하거나 보수하는 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군선교를 지원하고, 위문 행사를 통해 군선교를 고취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장병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중군목사 후보생을 위한 세미나, 군목 수련회, 기독 부서관 세미나, 기독장병 영성 세미나, 군중병 훈련, 그리고 군입대 전의 청년 신자들을 군선교 사명자로 훈련하는 비전 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랑의 온차 보내기 운동'을 통하여 장병들에게 기독교회의 사랑을 전하였다. 중군 목사들과 신우들이 앞장서서 자정에서 새벽에 이르는 시간에 보초서는 병사들에게 차 한 잔씩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제시한 후 기도하여 줌으로 기독교 신앙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다. 이러한 군선교 운동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첫째로, 한국 교회의 성장에 크게 공헌하였다. 1969년 전군 신자화 운동과 함께 시작한 제1차 진중세례 운동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한국 교회 역사상 최고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교회 성장이 정체된 1990년대에 진중에서 일어난 세례 운동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군 교회의 성장은 민간 교회와는 크게 구분되는데 이는 한국 교회의 장래를 결정하고 있다. 그 예를 들어보자. 2001년 예장 통합교단의 경우, 5,500개 교회가 불신자를 개종시켜 세례를 준 숫자가 4만 명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군을 통해서는 매년 20만 명의 불신자가 신앙으로 돌아왔다. 이는 군선교가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군선교를 무시할 수 없음을 교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청년 선교의 대부분이 군

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군대 안에서 기독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000여 개가 넘는 군인 교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과 신앙의 원리로 삼는 운동을 전개함으로 기독교 문화를 확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밝은 사회가 건설되고 세속화된 사회 문화를 기독문화로 전환하여 생명력이 있는 밝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 교회는 병영에 많은 것을 투자하여 왔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1년 동안 주일 설교 테이프, CD롬, 복음 성가와 간증, 설교 비디오 테이프 등 5,035개를 지원하였고, 「생명의 삶」 등 67 종류의 서적(총 553,286부)을 지원함으로 군대 안에서 기독교 청년 문화를 토착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죄율이 저하되었고, 군대의 사기가 진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⁹⁾

셋째로, 다수의 기독 인재를 양성하여 냈다. 군대라는 독특한 기관을 통해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국가와 민족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고취함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국가 경영의 전 분야에서 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육성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선교를 통하여 장병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29)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교회와 출판사의 후원으로 2001년 군부대에 배부한 서적은 단행본 35종 22,705권, 월간지 19종 317,284부, QT교계 7종 172,060부, 성경책 3종 39,669권, 찬송가 2종 550부, 전도용 소책자 1종 1,000부 등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총회보고서」 p. 37.

병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군선교 운동은 내적으로는 민족 복음화 운동의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외적으로는 국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등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군선교는 한편으로 여러 연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간 교회의 지도자들은 군인 교회의 실태와 애로 사항을 잘 모르며, 군선교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군인교회에는 지도자가 부족하며, 양적 성장에 비해 양육 및 제자 훈련이 미흡하고, 기독교 문화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이다. 1,000여 개의 군인 예배당 수에 비해 군중 목사는 30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군 세례 신자의 효과적인 관리와 전역자를 일반 교회와 연결시키는 일이 아직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교회는 군선교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곧 군인 교회는 군인 교회의 상황을 민간 교회에 널리 알리고, 민간 교회는 군인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군목들이 신학석사(Th. M.) 과정과 같은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선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는 군선교 공식 기관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며, 군선교 전문인을 양육하고, 초신자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군선교를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기관인 군목의 수를 늘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미 민간인 신분으로 군선교사역을 지원하는 군선교 일반교역자들도 약 350여 명이 되므로, 전문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적임자가 선발

되고,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선교활동비의 안정적인 지원 등 교단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며 적용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에서 신앙을 갖게 된 초신자가 전역한 후에 기성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군민이 협동하여 군선교에 전력할 때에 한국 교회는 2020년에 민족의 75퍼센트를 복음화하려는 '비전2020' 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선교는 교회 성장과 전도의 대안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민족복음화의 방법이기 때문이다.